

## SK에너지, Shanghai 이사회 개최

SK에너지가 11월21일 오후 중국 Shanghai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 김준호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조순 이사, 한영석 이사 등 사외이사 6명 전원이 참석했다.

SK에너지가 해외에서 이사회를 연 것은 2004년 10월 중국본부 개소식과 함께 한 Beijing 이사회, 2005년 싱가포르 이사회, 2006년 Dubai 이사회 이후 4번째이다.



SK에너지 이사회사무국장 남상곤 상무는 “중국 경제의 중심도시인 Shanghai에서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중국사업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글로벌 전략을 현장에서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이사진은 이사회 이후 중국 칭화대 리다오쿠이 경제학 교수를 초청해 중국 및 Shanghai의 경제발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의 세미나를 진행했고 11월23일에는 Shanghai Fudong 지역에

있는 용제 합작기업과 Shanghai 지사를 방문해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용제 합작기업은 SK에너지가 중국 석유화학기업 Gaoquiao Petrochemical과 함께 2005년 50대50 비율로 합작했으며 생산능력 6만톤이다.

Shanghai 지사는 1995년 개소돼 화학제품 무역과 중국 내수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회사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라 Shanghai 이사회에 앞서 11월 초 Beijing 포럼에 참석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일본 최대의 석유기업 Nippon Oil을 방문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21>